■ 민주당 전대 한달앞…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지 성향은

정세균 우세속 손학규·정동영 뒤이어

중도파 의원들, 박지원 행보따라 후보 결정 영향 미칠듯

민주당 전당대회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왔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차기 당권 주자 지지 성향을 점차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룰과 당권 경쟁 구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력 당권 주자들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선 '빅3' 가운데 정세균 전 대표 지지나 지지 성향을 보이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당권파인 강기정 의원과 당권파의 지지로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아 남구에 진입한 장병완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정 전 대표 성향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본인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에서는 서갑원 의원과 김성곤 의원 등이 정 전 대표 지지 성향으로 분류된다.

손학규 고문 지지는 광주의 김동철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원한 관계가 형성됐던 김재균 의원도 손 고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쇄신연대 소속의 김영진 의원도 손 고문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인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우윤근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물 밑으로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당권 주자인 박주선 의원은 구 민주계의 박상천 의원이 돕고 있고, 김효석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박주선, 김효석 의원 측에서는 '빅 3'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중도 성향 의원들의 지지가 겹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인 2표제가 채택된다면 지역 의원들이 1표는 '빅 3'에, 다른 한 표는 자신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영택, 최인기, 김영록, 이윤석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의 행보다.

이들은 아직까지 특정 당권 주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좀처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선 막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인 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킹-메이커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행보는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 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지 않아 전체적인 판세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밤과 낮에 따라 지지 당권 주자가 바뀌는 '박쥐 행각'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료 출신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철학과 소신에 따라 지지 당권 후보를 결정하기 보다는 중립을 표방하며 당권 구도를 주시하고 있어 '소신보다는 대세론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봉사활동 펼치는 강운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30일 오후 북구 오룡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시튼장애인재활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함께 빵을 만들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정가 라운지

김재균 시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30일 오는 9월11일 치러지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광주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으로 광주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지위가 약화하고 있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 집단의 공천 전횡과 당원참여 배제에 따른 당원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광주시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주류인 김 의원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당을 책임졌던 제1기 집행부는 백의종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세균 전 대표 등 주류 측 인사들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당원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광주시당 건설 ▲민주세력과의 소통과 연대 활성화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광주시의 중장기적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종식 서구청장 보선 출마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흐트러진 서구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민선 3기 서구청장으로서 깨끗하고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인 일 처리를 했던 제가 구청장으로 나서게 됐다"고 10·27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청장은 또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와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균형적인 서구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서구청장 보선 출마

송갑석 전 전대협(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구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정치 현장으로 도전을 하게 됐다"고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의장은 "이번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공천을 통해 참신한 인물 경쟁의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패의 싹을 자르고 참여자치 실행을 위해 구정의 모든 것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 나눔과 연대, 풍요가 넘치는 우애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의원 연찬회서 추태

제6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의원 연찬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의회 사무처 간부 간 한바탕 소란이 빚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1박2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2010 의원 연찬회' 첫날 뒤풀이 자리에서 A 의원은 사무처 간부가 평소 친분관계가 깊은 B의원에게 반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며 사무처 직원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술 컵을 던졌고, 의원들이 뜯어말리는 소란이 빚어졌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었다"며 "현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를 받았고, (자신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월드뮤직페스티벌 홍보 안돼 공직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30일 오전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첫 보고에 나선 기획조정실은 오는 14일 공동대표 원탁회의 창립회의, 2010년 추경예산 및 2011년 예산안 작성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지금 실·국장들은 서울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신 바짝 차리고 막바지에 더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1하수처리장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환경생태국 보고에 대해 강 시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설계변경때 기본 개념을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디자인국은 다음달 초 주거·문화·녹지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창조적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해 시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광주시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교통국은 산수초등학교 등 5개 시범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보호 아래 귀가 아동을 집까지 안내하는 '보행안전 도우미'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관실은 토착비리 및 친서민정책 관련 정부 하반기 합동감사 계획에 대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30개 지점에서 환경소음 실태조사 계획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아파트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아주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도로·아파트·환경부서가 TF팀을 구성해 아파트가 먼저 있으면 도로를 내는 부서가 책임지고, 도로가 먼저 나 있으면 아파트 관련 부서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광주에서 개최된 월드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강 시장은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시민은 물론 공직자도 모르는 것 같다"며 "행사장에 갔더니 공직자들도 거의 안 보였으며, 행사의 질에 비해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돈 쓰기 위한 예산편성 하지말라 믿을만한 직원 임명해 감시할 것"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직접 '곳간 지키기'에 나섰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한달 밤을 새서라도 직접 챙기겠다"며 쥐어짜기 경영에 나선 것이다.

박 지사는 30일 열린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전남도처럼 돈 없는데가 없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내가 몇 사람을 임명해 신규 및 기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많이 한다고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최근 각 국별 실무자와 예산담당자 등 11개팀 25명으로 이뤄진 '재정분석 TF팀'을 꾸린데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추가로 믿을만한 직원들을 임명, 편성된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조금만 편성하면 될 것을) 지사가 지시했으니 돈 줄 것이라고 해서 부풀려 가져온다"면서 "돈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도 말고 신청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내가 한달 밤을 새더라도 반드시 챙겨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지사는 또 영산호 카누경기장을 연중 활용하는데 전담 인력 및 장비 확보 예산 2000만원이 부족하다며 내년 본예산에 신청하는 방안과 갯벌도립공원의 홍보 강화를 위해 관리·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을 보고받은 뒤 "모든 것을 예산에 의존하면 소명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교 우위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못하는 게 관광"이라며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TF도 만들어 전남 관광을 통해 돈을 쓸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2006년 이후 도지사 지시사항 1086건 가운데 717건이 완료됐고 369건이 정상 추진되거나 장기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